

U-20 축구, 마침내 마주한 꿈같은 현실

1983년 멕시코대회 이후 36년만에 4강
‘유소년 전문가’ 정정용 감독이 지휘
12일 에콰도르 잡으면 역대 최고성적

1983년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은 한국 축구 최초 FIFA 주관 대회 4강 진출로 기억된다. 개최국 멕시코와 호주를 2-1로 제압하고 8강에 안착한 한국은 준결승 길목에서 만난 우승후보 우루과이마저 연장 접전 끝에 제압하고 4강 신화를 이룩했다.

멕시코에서의 대성공은 이후 U-20 월드컵 한국 대표팀 성공의 척도가 됐다. 대회 전 목표를 말할 때마다 감독과 선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4강'을 외쳤다.

적어도 U-20 월드컵에서는 4강이 시야에 들어오는 8강에는 올라야만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U-20 월드컵에서 성인 월드컵에 비해 좋은 성적을 거둘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4강이라는 기준이 선수단에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온 것 역시 부인하긴 어렵다.

올해 폴란드 대회에 참가한 정정용 감독과 선수들의 목표 또한 4강이었다.

정 감독은 "16강까지 하고 오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웃으면서 '허세'인 1983이 되길 바란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이번에는 목표

와 결과가 일치했다는 것이다.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패할 때만 해도 조기 탈락의 우려가 고개를 들기도 했지만 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까지 쓰러뜨리면서 16강에 진출했다.

토너먼트 첫 관문에서 만난 일본 전에서는 전반을 실점 없이 차분히 막아낸 뒤 후반에 승부를 보는 정 감독의 작전이 제대로 적용됐다. 유일한 라이벌 일본전 승리로 팀 분위기를 절정으로 향했다.

9일 오전(한국시간) 벌어진 세네갈과의 8강전은 이번 대회 최고 명승부로 꼽힐 정도로 시종일관 손에 땀을 쥐게 했다.

한국은 1-2로 뒤지던 후반 추가 시간 이지솔(대전)의 헤더로 기사회생했다. 연장전에서 조영욱(FC서울)의 역전골이 터졌지만 이번에는 연장 종료 직전 세네갈 아마두 시스가 균형을 맞췄다. 운명의 페널티킥에서 한국은 초반 두 차례 실축에도 불구하고 골키퍼 이광연(강원)의 선방에 힘입어 드라마를 완성했다. 비디오 판독(VAR)은 한국을 빛낸 명품 조연이 됐다.

신화 재현의 중심에는 '청소년 전문가' 정 감독이 있다. 정 감독은 1997년부터 6년 간 이랜드 푸미에서



중앙 수비수로 뛰었다. 하지만 큰 부상에 발목을 잡히면서 30세도 안 돼 축구화를 벗었다.

선수 시절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정 감독은 대한축구협회 전임지도자로 후배 양성에 나섰다. 2006년부터 각급 대표팀에서 코치, 감독을 맡으며 축구 철학을 공유했다. 대구 FC 수석코치로 활동한 2014년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린 선수들과 함께 하며 협회 내 '유소년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다.

다년 간 어린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 쌓인 데이터는 정 감독의 큰 자산이 됐다. 연령대 대표팀에 공백이 생길 때마다 정 감독의 이름이 가장 먼저 거론될 정도로 그는 이 분야에서 확실히 인정을 받았다.

비판 와중에도 틈틈이 펜을 잡으며 한양대 대학원에서 스포츠생리학과 박사과정까지 이수하는 등 자기

개발도 등한시 하지 않았다.

선수들도 정 감독의 요구대로 '원팀'이 됐다. '박내형' 이강인(발렌시아)이 중원에서 중심을 잡고 오세훈(아산 무궁화)과 조영욱이 전방을 누비며 수비수들을 흔들었다. 수비 라인을 지휘하는 주장 황태현(안산)과 미지마 방어선인 이광연의 활약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정 감독은 경기 후 "오늘 전 국민들과 약속한 부분을 지킬 수 있어 행복하다"면서 "오늘까지만 기쁨을 만끽하고 내일 다시 경기를 준비하겠다. 끝까지 도전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시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 게이트볼

제14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영암군 종합스포츠타운 등 영암군 일원 종합별 경기장에서 열렸다.

특히 영암군 종합스포츠타운 B 축구경기장에서 열린 게이트볼대회는 경상북도게이트볼협회(회장 김영선)가 임원 등 선수 2개 팀이 참가해 교류전을 치러 눈길을 끌었다.

임원 팀 경기에서는 장귀남(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회장 등

큰 점수 차로 강진군 B팀을 물리치고 영광의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에 오른 영광군 A팀과 B팀의 준결승전에서 영광군 B팀과 맞붙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김영선(영광군게이트볼협회) 감독은 "욕심이지만 대진 운이 좋았더라면 영광군 A팀과 B팀이 결승전에서 만날 뻔 했다"며 "그러나 시·군이 다른 팀이 결승을 치르는 모습에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또 한 번 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준우승을 차지한

전남 지역 대표 44개 팀 경상북도 대표 2개 팀이 2일간 치열한 '격돌' 우승 영광군 A팀, 준우승 강진군 B팀, 공동3위 곡성 A팀·담양군 B팀

시·군 게이트볼협회장들이 경기 선수로 참가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일반 시군 팀은 1일째 예선과 2일째 본선을 거치는 치열한 경쟁 끝에 영광군 A팀(이병복 주장, 박행화 김근호 최병완 양동현 이명순 선수)과 강진군 B팀(손홍식 주장, 박길해 심정식 김현식 정승본 방득천 선수)이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영광군 A팀이 경기 시작 전부터 후반까지 앞서 가는 실력을 보여 결국 15대 8의

강진군 팀의 기술력 등 멋진 경기 매너에도 배울 점이 많았다"고 했다.

또한 장귀남 회장은 입상 팀 시상에서 "매년 선수들의 기량이 물러보게 발전한 모습이 눈에 보인다"며 "전남 게이트볼의 인구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선수들의 평균 나이도 현저하게 젊어지고 있어 기술력 향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하고 "전남 게이트볼 발전이 기대 된다"며 대회를 마쳤다.

영암=조재호 기자

류현진, 내일 LAA전서 10승 도전...오타니와 맞대결 관심

보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LA 에인절스를 상대로 시즌 10승 도전에 나선다.

MLB닷컴은 9일(한국시간) 류현진이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리는 LA 에인절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고 예고했다.

거침없이 승수를 쌓아 나가고 있는 류현진은 10승 사냥에 나선다.

류현진이 미국 진출 후 두 자릿수 승리를 때낸 건 2014년(14승7패)이 마지막이다. 이후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면서 고전했다.

그러나 올 시즌 페이스는 매우 좋다. 올해 12경기에 나와 9승1패

평균자책점 1.35를 기록하고 있다. 다승 공동 1위, 평균자책점 1위다. 80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삼진 71개를 잡아내며 불꽃은 7개만 내주는 등 제구력을 앞세워 상대 타자들을 제압하고 있다.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가면서 승리도 빠르게 추가하고 있다.

최근 피칭은 더욱 물이 올랐다. 5월 한 달간 5승무패 평균자책점 0.59를 거두며 '이달의 투수상'을 수상했고, 6월 첫 등판이었던 지난 5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7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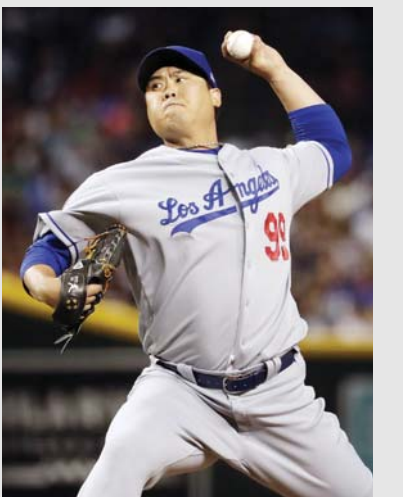
10승 도전 상대인 에인절스에도 강했다. 류현진은 에인절스전에 통산 3경기에 나서 2승무패 평균자책

점 0.88으로 잘 던졌다. 에인절스 타수에서는 2경기 1승무패 평균자책점 1.42를 기록했다.

류현진이 에인절스전에 등판하면서 오타니(25·LA 에인절스)와 맞대결에도 성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프로야구를 거쳐 지난해 빅리그에 데뷔한 오타니는 '야구 천재'로 불린다. 지난 시즌 투타겸업을 하며 아메리칸리그 신인왕도 따냈다.

류현진과 오타니는 아직 한 번도 맞대결을 치른 적이 없다.

지난해 말 팔꿈치 수술을 받은 오타니는 올해는 타자로만 뛰며 26경기에서 타율 0.240(104타수 25안타), 5홈런 20타점을 수확하고 있



다.

좌투수를 상대로는 타율 0.233(30타수 7안타)를 기록 중이다. 홈런은 하나도 때려내지 못했다.

에당 아자르, 레알 마드리드行...5년 계약

유럽 축구를 대표하는 기술자 에당 아자르(벨기에)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를 떠나 스페인 명문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한다.

레알 마드리드는 8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아자르가 입단한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첼시와 아자르의 이적에 합의했다. 계약기간은 5년이다"고 전했다. 이적료는 8800만 파운드(약 1300억원) 수준으로 메디컬 테스트만 남았다.

아자르는 유럽을 대표하는 미드

필더다. 개인기와 돌파 능력이 수준급이고 경기 흐름을 지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2018~2019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2골 1도움을 올리며 아스날은 꺾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프랑스 리그앙 릴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아자르는 2012~2013시즌부터 첼시에서 7시즌을 뛰며 총 352경기에서 110골(81도움)을 기록했다. 두 차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란 구배군은 지리산은천, 창새미골, 회연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야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